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20일 월요일 음 4월 16일 (8물)

기상정보

구름 조금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18, 낮 최고기온은 19-23도가 되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Jeju, Seosan, Gosan, and Seogwi포.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 forecasts for tomorrow and the day afte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관심. Rows show information on food safety, UV index, and other safety-related weather data.

월드뉴스

일본 하코네산 화산성 지진 증가

분화구 주변 출입 규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유명 온천관광지인 하코네(箱根)산에서 화산 지진 활동이 증가해 분화경계 레벨이 한 단계 올랐다.



일본 가나가와현 하코네산 오와쿠다니(지속 협곡) 모습.

일본 기상청은 19일 하코네산에서 화산성 지진 횟수가 급증해 분화 경계 레벨을 1(활화산인 것에 유의)에서 2(분화구 주변 출입 규제)로 올렸다고 발표했다.

쿠다니(大涌谷) 주변 화구에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큰 돌의 분출 가능성과 화산 가스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코네산의 분화 경계 레벨이 2로 상향조정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하코네초(町)는 기상청의 경계 레벨 상향 조정에 맞춰 19일 하루 동안 오와쿠다니 화구 주변의 출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하코네산에서는 18일 오전 5시경부터 아시노 호수 서안을 진원으로 하는 화산성 지진이 갑자기 늘었다.

또 오와쿠다니 계곡으로 이어지는 지방도로의 통행을 금지했다.

17일에는 한 차례도 없던 것이 18일에는 45회로 증가했다.

해발 1438m의 활화산인 하코네산은 13세기 이후 약 800년 만인 2015년 6-7월 소규모 분화가 일어나 한 동안 입산이 규제된 바 있다. 연합뉴스

일본 기상청은 이른 근거로 하코네산의 '지속협곡'으로 불리는 오와

한리일보 advertisement box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백록담



문 미 숙 서귀포지사장·제2사회부장

#캐리어를 놓아둔 버스 짐칸 문을 못 열겠다는 승객에게 버스 운전기사는 대뜸 "무사 그거 하나 못열면 난리우파?" (왜 그것도 못열고 난리잡니까?)라며 대놓고 면박을 준다.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고령자에게 "할망 빨리 내리지 않고 뭐하십니까?" 하고 욕박지른다. #정류장에서 목적지 경유 여부를 묻자 "우리도 버스 노선 다 몰라요"라며 통명스럽게 응수하거나, 다른 차량이 끼어들자고 할라 치면 거친 입담을 쏟아내며 공포스런 분위기를 만든다. 제주에서 서귀포시를 오가는 버스를 간간히 이용하며 목격한 버스

제주버스 안에서

안 풍경들이다. 제주도가 2017년 8월 제주대중교통 운영체계를 30년만에 전면 개편, 버스업체끼리 서로 경쟁하는 민영제에서 공공성을 우선한 준공영제로 바꾸며 내세운 가치는 '더 빠르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였다. 급행버스를 제외한 도 전역의 요금을 1200원으로 단일화해 제주-서귀포 등 장거리 승객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읍면 외곽지역에서 제주공항까지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등 긍정 평가가 있다. 하지만 승객의 이런 혜택은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인상과 비수익노선 운행으로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적자 보전 등 연간 1000억원 가까운 공적자금이 투입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교통불편 신고가 오히려 시행 전보다 증가했다고 한다. 여러 논란에도 제주도가 강행한 준공영제의 취지를 들춰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준공영제가 도

입된 2017년(8월 26일~12월 31일) 버스회사와 관련한 불편민원은 140건이었다. 2018년에는 587건의 불편민원이 접수됐고 유형별로는 정류장 무정차, 불친절이 많았다. 현재 버스 불편과 관련한 제주도의 대응은 시정과 경고에도 반복 민원이 접수되면 건당 5만원이나 10만원의 과징금 부과 전부터. 지난해 7개 버스회사에 383건·3000여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렸다. 단순계산하면 회사 한곳당 연간 400여만원꼴로 미미하다. 친절하지 않다는 평가에 버스 운전기사들도 할말이 있을 게다. 업무 특성상 행선지 문의 등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는데 매번 친절할 마음이 쉽지 않고, 운행시간도 지켜야 해 여유도 없다는 데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친절한 버스 운전기사들도 많다. 손님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를 자

연스럽게 반복하는 이들을 여럿 만났다. 그들의 인사는 승객의 인사를 불렀다. 지팡이를 짚은 고령의 할머니에게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에서 시작해 버스에 오른 할머니가 자리를 찾지 못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출발하는 세심한 배려에 버스 승객들이 "보기도 드물게 친절하구나"이라며 한마디씩 거들던 기억도 있다. 제주도가 추진중인 렌터카 총량제나 7월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차량 총량을 줄여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있다. 렌터카와 자가용 승용차를 줄이고, 대신 버스 이용을 확대해 교통문제를 풀자는 건데, 승객에게 친절해도 그만이고 불친절해도 별로 손해를 볼 게 없다면 제주 버스 서비스는 지금보다 좋아질 리 만무하다.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를 위한 제주도의 대책을 촉구한다.

열린마당

A형 간염! 개인 수칙으로 예방 가능하다



배 종 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최근 전국적으로 A형 간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전국적으로 4200건 이상의 A형간염 신고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신고 됐던 2436건을 초과했다. 제주도민에 있어서도 총 16건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 신고 된 3건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발생사례의 연령층의 대부분이 면적이 떨어지는 영유아나 노인이 아니라, 30~40대 성인인 점이 특이하다. 이는 1970~80년을 지나면서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위생 환경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아동기를 보냈던 세대들은 대부분 가볍게 A형간염을 앓고 지나가면

서 평생 지속되는 항체를 갖게 됐다. 그러나 위생 및 생활 환경이 개선되면서 소아기에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없으면서 항체를 형성하지 못한 현재의 30~40대가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취약 계층이 된 것이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식품이나 식수로 입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며, 아동기에 감염이 될 경우 거의 대부분 후유증이 없이 나오면서 평생면역을 갖게 된다. 따라서 A형 간염을 예방하려면,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으로 평생 면역력을 확보하고, 평소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A형간염의 예방접종은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12~23개월의 모든 소아는 필수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도민 중 30~40대 연령층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한 다음, 음성이 나오면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 A형간염은 성인에 발생할 수록 대부분의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중증도가 심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독의 시대, 왜 소유를 포기할까?



강 지 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3학년

'구독경제'의 시대인 지금, 누구나 일상 속에서 구독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구독의 개념은 신문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구독경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신(新)구독서비스가 등장한 이후부터이다. 넷플릭스는 월정액으로 요금을 내 구독하면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메리트를 내세웠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며 성장했고 최근의 구독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를 넘어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면도날, 식품, 자동차, 고급의류 등에서도 구독이 가능하다. 면도날, 식품의 경우 기간에 따라 구독을 하면 업체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정해진 날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생필품을 신경 쓸 겨를이 없

는 현대인들에겐 최적이다. 보다 비싼 자동차나 의류의 경우에는 사용한 뒤 반납하여 바꿔 쓸 수 있다. '구독경제'가 새롭게 자리 잡은 것은 사회적 배경 때문일 것이다. 몇 년 전, 'N포세대'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는 'N' 가치를 포기한 세대를 뜻하며 삼포세대에서 오포세대, 칠포세대로 범위를 넓혀갔다. 지금의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왔지만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전에는 노력하여 원하는 직장과 집을 가질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럴 수 없다. 노력의 기준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지 못하는 대신 지금을 즐겨야한다. '소확행'의 용어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변하고 있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그들은 소유하여 보관하는 것 보다는 구독, 이용하는 것에 가치를 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을 즐기는 N포 세대에게 구독서비스는 의미가 크다. '구독경제'가 포기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면, '구독'은 바로 그 선택지이자 '소확행'의 결과인 것이다.

Advertisement for '천연염색' (Natural Dye) featuring a woman named '이미애' and a clothing store. Text includes '천연염색 배우실 분 환영함', '이미애 같옷', '여름맞이 고객 감사 40~50% 특가세일', and contact info 725-0229.

Large advertisement for '삼천리자전거' (Samsanri Bicycle) featuring Trek and Cello brands. Text includes '70년을 한결같이 우리 생활 속 가까이 시대가 변해도 자전거는 역시 - 삼천리자전거', '제주그린바이크', '고급MTB. 접이식자전거, 아동용자전거 등 다양한 디자인의 종집합', and contact info 725-3004, 721-3002.